



4면  
전문가들의 힘 모아  
전주형 스마트도시 연다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 도심 달리는 1호차 수소버스

### 현대차, 성능 등 향상시킨 완성형 버스 전주시 전달 송천동 공판장·양묘장 오가는 103번에 본격 투입 2024년까지 시내버스의 20%인 80여대 도입키로

대한민국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가 국내 최초로 전주를 달리게 됐다.  
국내에서 수소 시내버스가 시범사업으로 운행된 적은 있지만 성능 및 구조개선 등을 거친 완성형 수소 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와 현대자동차는 29일 전주시 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인철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장, 문용호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사장,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형 1호 수소 시내버스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버스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성능과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켜 생산한 첫 양산형 수소 시내버스로, 30일부터 송천동 공판장과 양묘장을 오가는 103번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와 현대자동차는 앞서 노후화된 기존 시내버스를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로 매년 15대 가량을 교체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 협약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20%에 해당하는 80여 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전주시를 누비게 된다.

시는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버스는 운행 시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오로지 물만 배출하면서 외부 공기를 차내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소버스 1대가 1km를 달리면 4.863kg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버스 1대가 연간 10만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무무게 64kg의 성인 약 85명이 1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내연기관 없이 전기로 움직이는 수소 시내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아 승객들의 만족도

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 1호차 도입을 기념해 시청~국립무형유산원~풍남문 광장~시청을 운행하는 수소버스의 시승행사를 갖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인철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9일 전주시청 앞에서 열린 수소 시내버스 양산형 1호차 인수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는 향후 수소버스 등 수소차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중 송천동 버스화차지 인근에 전주 1호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완산구 권역에 2호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인철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장은 이날 "전주시에 수소 시내버스를 보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보급을 확대해 수소 전기버스의 우수한 성능과 높은 안전성, 친환경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린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친환경 수소버스를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만큼 대한민국 그린 뉴딜과 수소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 도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현재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 △수소교통 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道, 상수도 위기대응 협약

### 광역단위 전국 최초... 체계형 서비스로 신뢰도 상승기대

전북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처음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수도 관련 재난, 사고 등에 신속 대응하는 통합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도(송하진 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박재현 사장), 전북지방환경청(정복철 청장)은 29일 도청에서 '전북도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협약을 통해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과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수도사고 등 위기상황의 전 과정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기술인력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도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합위기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지자체 단독 대응하던 도내 수도 사고 위기에 더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수도 통합 위기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도는 수도사고 위기 시 도내 14개 시·군이 보유한 자원과 인력 등을 상호 지원하도록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가 이뤄지도록 수도사고 위기대응체계를 확립,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개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수도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 요청 시 대규모 수도사고의 수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자체와 공사에서 보유한 복구자재, 물차, 기술인력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교육 및 모의훈련, 노후관망·유수율 제고 등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사고대응보다 먼저 신속한 사고복구 및 비상급수를 통해 단수 등 사고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도 단위 통합 위기대응 협력체계는 위험요인을 저감, 수도사고 대응의 표준협력모델을 정립, 효과적인 수도사고 대응체계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도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체계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 안전이라는 공적가치를 제고하고 수돗물 안전에 대한 대외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상수도 사고는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전북도민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응원하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유호상기자

## 전북 최고 188mm '물폭탄'...침수·토사유실 곳곳 피해

### 고창·진안 시간당 40~50mm 강한 비... 오늘 오후까지 최대 80mm

전북도내 대부분의 지역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9일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누적 강수량은 임실 188.5mm, 순창 147.5mm, 진

안 130.5mm, 고창 127.8mm, 부안 125.7mm, 완주 모악산 113.5mm, 정읍 내장산 111mm, 순창 108.3mm, 장수 86.4mm, 전주 61.4mm, 임실 57mm, 무주 55.5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고창과 진안의 경우 시간당 40~50mm의 강한 비가 내리

고 했다고 기상지청은 설명했다. 이 비는 오는 30일 오후까지 30~80mm가 더 내리다 그칠 것으로 기상지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전날부터 내린 많은 비로 전북에서는 축사 및 농작물 침수와 토사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배수지원 2건, 안전조치 9건 등 11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께 완주군 상관면 습지제 국도 17호선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으며, 지자체는 골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정비했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공밭 10ha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전날 오후 6시 5분

께 남원시 수지면의 한 식당에 물이 들어차 배수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었다"면서 "기상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해 발생한 곳에 대한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k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